

3. 中東 地域의 平和와 第2의 中東 봄

- 요르단-이스라엘의 平和協定으로 中東 地域의 전쟁상태가 終熄되고 있음
- 最近 中東地域 平和는 自國의 繁榮을 위한 經濟的 利得 追求로 가속화됨
- 社會間接資本, 投資誘致, 貿易擴大, 觀光事業 開發 등 경제붐이 예상됨

-平和와 經濟의 連繫 論理

- 지난 7월 25일 와싱턴에서 이루어진 요르단-이스라엘 협정으로 중동지역의 平和 定着이 가속화되고 있음
- 아랍국들이 平和와 경제를 밀접히 連繫시키고 있어 중동지역의 平和 進전에 따라 그 經濟的 效果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됨
- 이러한 급격한 정치적 변화는 平和 惠澤(Peace Benefits)으로 무역확대, 투자촉진, 관광 유인 등 경제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

-經濟的 影響

- 이미 7월 중순부터 투자자들이 요르단 기업의 주식 매입을 시작하였고 많은 西方 企業들이 直接投資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요르단은 미국으로부터 7억 달러의 債務蕩滅과 軍 現代化 지원을 약속받았고 항만 및 운하건설, 댐 및 송수시설, 대형저수조 사업과 사해 개발과 호텔 등 觀光산업 개발을 추진 중임
-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로 독일 폭스바겐의 플랜트 건설, 다임러 벤츠의 이스라엘-아랍 국간의 철도 및 고속도로 프로젝트, 일본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진출 등이 활발함
- 이스라엘, 요르단,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三角經濟圈의 형성이 기대됨. 특히 이 지역은 아랍권과 아프리카 및 유럽 대륙을 잇는 架橋로서의 지리적 強점이 있음

-向後 展望

- 중동지역 국가들은 80년대 이후 石油價 下落으로 국제 수지 및 재정 위기의 문제들을 겪고 있어 海外 直接投資를 誘引하고 있음
- 특히 변화하는 국제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질서 및 민간 부문을 활성화 시키는 經濟自由化 정책이 가속화 될 것임
- 이러한 중동지역의 정치적, 경제적 변화는 우리에게 건설 뿐만아니라 무역, 제조업, 관광 산업 등 풍부한 시장을 提供하여 「第2의 中東 봄」을 만들 좋은 機會가 되고 있음
- 그런데 70년대의 중동 봄은 막대한 石油 收入 증가에 기인하였지만, 지금은 프로젝트 금융을 수반하지 않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대하기 어려움

(김 인 춘)